

신문지로 소리내요

어느 집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신문지는 다양한 소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재료입니다. 신문지를 찢고 구기며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놀이는 소리변별력을 기르고, 정서적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. 신문지 이젠 그냥 버리지 마세요. 훌륭한 악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.

필요한 것은

- 신문지, 아이가 좋아하고 잘 따라 부르는 동요 테이프
- 그림카드 만들 것(도화지, 크레파스, 가위)

놀이를 할 때는

- 엄마가 신문지를 찾아주기 보다는 아이가 직접 집 안 곳곳에 있는 신문지를 찾아내는 놀이로 시작한다.
- 놀이 장소 바닥에 신문지를 마음껏 펼쳐놓는다.
- 엄마와 자녀가 펼쳐놓은 신문지를 발로 마음껏 밟으면서 걸어봅니다. 이때 자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걸어도 좋아요.
- 엄마가 “신문지!” 라고 외치면 얼른 신문지를 한 장 줍는다.
- 엄마가 말로 지시하는 대로(언어적인 지시만으로도 이해가 가능한 만 5세) 혹은 엄마가 하는대로(만 3, 4세)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. 이 때, 신문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
·“펼럭 펼럭 한 손으로 신문지를 잡고 깃발처럼 흔들어보자”

·“두 손으로 신문지를 잡고, 위.아래로 흔들어보자”

·“두 손으로 신문지를 잡고, 반으로 접었다 폈다 해볼까?”

·“한 손으로 신문지를 잡고, 손가락으로 신문지를 튕겨볼까?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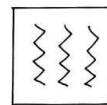
·“신문지를 찢어보자. 살살 찢어볼까? 세게 찢어볼까?”

·“신문지를 막 구겨보자, 구겨보자”, “꼭꼭 동그랴게 뭉쳐보자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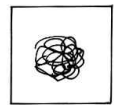
·“동그랴게 뭉쳐진 신문지를 주먹으로 쳐볼까? 권투, 권투!”



튕 기 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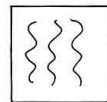
찢 기



구 기 기



접었다 펴기



흔들기



권투하기

- 아이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신문지로 신나게 연주합니다.
- 만 5세 자녀들과는 연주하는 방법을 기호로 만들어 봅니다.
 - 도화지를 작게 오려서 카드를 만듭니다.
 - 각각의 카드에 다음과 같이 기호를 그립니다.
 - 엄마가 제시하는 카드대로 신문지를 소리냅니다.
 - 노래를 부르면서 신문지를 연주합니다.